

고려 「대방광불화엄경」 사경과 기타사경 변상화의 내용분석

The Content Analysis of Byunsangwha(illustration) of the Script of Avatamsaka-sutra(buddhavatamsaka-nama-mahavaipulya-sutra) and Other Sutras of the Goryeo Dynasty

권 희 경 (Kwon, Hi-Ky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연대 확실한 기타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
| 2. 연대 확실한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 5. 연대 불확실한 기타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
| 3. 연대 불확실한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 6. 결 론 |

< 초 록 >

이 연구는 「묘법연화경」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2대 경전으로 교종뿐만 아니라 선종 쪽에서도 중시하던 「대방광불화엄경」의 사경변상화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현재 전질로 남아 있는 유품이 없어 내용분석에 있어 부분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을 행하고자 함은 경전의 내용이 복잡한 탓도 있지만 반드시 변상 앞에 제 몇 품인가를 명찰에 써서 밝히고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변상화의 내용분석을 통해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변상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다른 경전과는 달리 <불에 대한 보살의 교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각 품마다 교설자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친절하게 교설자인 보살과 청문자를 명찰에 써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도 반드시 명찰에 써서 알리고 있어, 내용분석에는 오히려 용이한 점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 다 그리지 못해 그림은 생략하고 명찰만으로 그 장면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방광불화엄경」의 각권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교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변상화가 발견되는 대로 내용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사경의 경우도 각사경의 설화적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hkkwon@cu.ac.kr)

접수일: 2006년 5월 17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교리에 해당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리기도 하지만,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는 난해하여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要語 : 사경변상화, 변상화, 사경, 대방광불화엄경

<ABSTRACT>

In this study, analyzed are the contents described on the byunsangwha of the scripts of Saddharmapundarika sutra and Avatamsaka-sutra which were considered to be two great important sutras by zen-buddhism as well as no-zen-buddhism in Korean mahayana-buddhism.

Since any full set of Avatamsaka-sutra was not found yet, the content analysis was limited to whatever currently available. However, with this limitation, in this study, an attempt is made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byunsangwha by examining the pums which accompanied those byunsangwha for Avatamsaka-sutra

Avatamsaka-sutra is different from other sutras, in that the interpretations of each bodhisattva, that is a preacher, regarding Buddha are the main focus, and therefore, each pum (chapter of sutra) has different preachers. On a name plate in front of byunsangwha, preachers and audiences are identified, and the core content of the appropriate pum are detailed. Sometimes, there were so much content that even byunsangwha was omitted, and only name plates were used to describe the main content. That is why it is rather easy to analyze the content of script of Avatamsaka-sutra. In order to figure out the most important creed in each volume of Avatamsaka-sutra, the content analysis of byunsangwha whenever found should be done.

In the case of other sutras, preaching content was also described on every script. While sometimes the whole creed were simply described on a scene, some content of sutras were too difficult to analyze. However, more effort was made to analyze such difficult cases, and further study is also required to understand them better.

Key words : byunsangwha, script of sutra, content analysis, Avatamsaka-sutra, Saddharmapundarika-sutra

1. 서론

「대방광불화엄경」은 「묘법연화경」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2대 경전으로 교종뿐만 아니라 선종 쪽에서도 중시하던 경전이었다.

「묘법연화경」은 각권에 변상화가 있는 사경이 여러 질 남겨져 있지만, 「대방광불화엄경」 사경의 경우, 현재까지는 전질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현실은 「대방광불화엄경」이 양적으로 방대하여, 전질로 사성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경이 있으니, 바로 충숙왕 復位 3년(1334)에 제작된 유상옥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이나, 같은 해에 제작된 호림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등과 같은 작품이다. 감지금자로 사성된 이들 두 권의 사경은 발원문의 내용에서 각각 다른 80화엄경 전질의 일부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80화엄의 방대한 양도 전질로 寫書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그러나 「대방광불화엄경」이 양적으로 방대하여 전질로 제작된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 또한 전연 배제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존하는 고려 「대방광불화엄경」 사경의 경우 발원문이 없는 사경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국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은 부분적인 내용분석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나 「대방광불화엄경」 각권에 나타난 변상화란 그 권에 해당하는 내용에만 국한 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앞·뒤 권의 연결 속에서 변상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단편적이기는 하나, 그래도 내용분석이 전연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낱권으로 유존하는 것이나마 사경변상화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다수의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년대가 확실한 사경변상화는 물론 년대가 불확실한 사경이더라도 내용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1) 주4), 주28)의 주문 및 본문 참조 요. 「대방광불화엄경」 81권을 금자로 사성했다는 발원문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감지금자의 「대방광불화엄경」이 전질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권마다 변상화가 그려졌다는 것도 이 사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생각되는 작품은 전부 내용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대방광불화엄경」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을 통해 고려인들이 「대방광불화엄경」 나타난 내용 중, 어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도해하려 했는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방광불화엄경」 중, 이미 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을 했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신중합부」와 日本 徳川黎明會 所藏品으로 徳川美術館이 보관하고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제4권과 大和文華館 所藏 「대방광불화엄경」 제35권·제36권, 太山寺 소장으로 大阪市立美術館 寄託되어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제42권에 대해서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므로 제외했다.

이와 같은 「대방광불화엄경」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과 아울러 기타사경이라는 이름으로 여타의 사경을 묶어 사경변상화의 내용 분석을 함께 하고자 했다.

이들 <기타사경>이라는 이름 속에 묶은 사경들도 「묘법연화경」이나 「대방광불화엄경」 못지않게 중요한 사경들이며, 반드시 내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경들이나, 그 양이 많지 않아 경전별로 다루기가 어려워 한데 묶어 고찰하고자 한다.

2. 년대 확실한 「대방광불화엄경」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2.1 유상옥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

충숙왕 復位 3년(1334), 권자본, 감지금자, 36.3cm×774.8cm,
변상화 감지금니, 22.5cm×56.2cm, 보물 제1214호.

이 사경의 특징은 권수에 발원문과 변상화가 그려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발원문의 앞부분은 떨어져 나가 表題나 內表題는 알 수 없다.

발원문은 변상화와는 별도로 구획을 만들어 그 속에다 쓰고 있는데, 발원문의

구획형상은 위쪽으로는 보개가 그려져 있고, 아래쪽으로는 중판의 연화가 그려져 있으며, 좌우로는 태선·세선·태선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사경은 발원문²⁾의 내용으로 보아 충숙왕 3년에 元의 徽政院의 使領이며, 掌謁의 鄉延慶司事³⁾였던 鄭秀滿⁴⁾이라는 인물에 의해 발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원문 중에 「화엄경」 81권을 사경했다는 기록이 있어, 상당히 애매모호한 감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루고자 한다. 다만 틀림없는 사실은 이 「대방광불화엄경」 제 15권은 정독만이 제작한 80화엄 중 한 권이라는 데는 異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 2) 榮祿大夫徽政使領/掌謁鄉延慶司事/鄭秀滿□□
 竊念荷父母訓育之德
 皇帝
 皇太后 舍人太子 眷遇之恩/獲事
 兩宮位階一品/永懷罔極/從感寸誠/於是金字書寫
 佛華嚴經一部/凡八十一卷/首楞嚴經十卷 受伏
 佛乘祈
 乾坤比於(覆)壽日月並於照臨家國含靈人神均慶
 元統二年甲戌五月 日 謹誌

- 3) 鄉延慶司는 元史本紀 世祖조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雲南延慶司는 나타나고 있다.
 4) 권희경, “고려후기 개인발원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중에서 p.174의 본문과 그 각주에서 ‘鄭秀滿’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화장박물관에서 보내준 사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진자료가 흐려 ‘秀’자를 ‘秀’자로 판독했으나, 2005년 11월에 조사를 통해 서체를 확대촬영 해본 결과 ‘秀’자임을 확인했으므로 바로잡는다

또한 이 사경변상화가 해인사 사간장경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의 목판 변상화와 모티브가 똑 같아 결코 元의 사경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⁵⁾

사경 가장자리에는 태선·세선- 세선·태선의 윤곽선 속에 금강저와 갈마를 연속적으로 그려 넣은 문양대가 있다. 이러한 가장자리의 문양대는 발원문의 구획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고 있다.

변상화가 시작하는 첫머리에 「賢首品第十二之下」라는 명찰이 보여, 이 사경은 「현수품」 제12의 下 부분이 수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찰의 내용으로 보아 「현수품」 제12의 상반부는 「대방광불화엄경」 제14권에 수록되어 있고 하반부는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변상화도 바로 그 내용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賢首菩薩의 계송이 「대방광불화엄경」 제14권에서 계속 이어져 있어, 바로 현수보살의 이러한 계송의 내용이 변상화로 그려진 것이다.

화면 가운데에는 파상형의 구획대가 그려져 있어, 화면을 양쪽으로 가르고 있다. 이 파상형 구획대의 상하 끝은 아주 뾰족하게 그려져 있다. 아래쪽은 전각으로 들어가고 있고, 위쪽은 향좌에 그려진 높은 전각의 최상부 아래쪽에 그려진 용이 있는 곳으로 이어져 있다.

파상형대 속에는 아수라와 도리천의 제석천이 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일견해도 바로 전쟁의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전 중에 「천과 아수라가 싸울 때 아수라가 패하여 달아남에 병장기 수레 및 무리들 까지 숨어버리니(중략) 천과 아수라가 싸울 적에 제석천왕의 신통력이 難思議하고, 제석천이 현신 하매 천안이 있고, 손에는 금강저를 쥐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위엄 있는 모습에 아수라가 바라보고 달아나 복종하니」⁶⁾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현수보살의 天과 阿修羅의 전쟁을 비유한 여러 내용이 그려져 있다. 파상형의 구획대를 중심으로 한

5) 이 사경과 발원문 양식이 같은 호림박물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을 원 사경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항의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 둔다.

6) 天阿修羅鬪戰時, 修羅敗衄而退走. 兵仗車輿及徒旅, 一時 匿莫得見,(중략) 天阿修羅共戰時, 帝釋神力難思議, 修羅望見威退伏(중략) 帝釋現身有天眼, 手持金剛出火焰, 被甲持仗極威嚴, 修羅望見含退伏.

향우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제14권에 현수보살의 계송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인지 「대방광불화엄경」 제14권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

수미단 위에 보살성중에 둘러싸인 비로자나불이 보좌를 앞에 두고 결가부좌를 한 자세로 앉아 있다. 비로자나불의 위쪽으로는 보개가 그려지고 있으며, 보개와 <겹쳐그리기>로 화려한 전각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전각의 향좌로 오존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오존상의 여래는 두광과 신평이 따로 그려지지 않고 하나의 방광으로 그려져 있다. 석가오존상⁷⁾은 「문수가 현수에게 내 이제 모든 보살을 위해 부처의 淸淨行을 설했으니」라는 내용⁸⁾을 설한 것을 설명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러한 여래의 향좌에는 연화좌 위에 앉은 보살이 2구 그려지고 있는데, 향좌의 보살은 정면향을 하고, 향우의 보살은 이 정면향을 한 보살을 향하고 있다. 정면향을 한 보살이 현수보살, 측면향의 보살은 문수보살로 볼 수 있겠다. 이는 「현수품」이 「문수보살이 흐리지 않은 청정행의 공덕을 설하고, 보리심의 공덕을 보이려고 현수에게 물었다」⁹⁾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보살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향우의 내용과는 달리 향좌의 내용은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그려져 있다.

파상형 구획대의 향좌로부터 보탑형의 전각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탑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먼저 전각을 아래쪽으로부터 살펴보면 전각의 대문이 그려져 있고 대문 그 위로 전각이 그려지게 되는데, 보탑형의 전각은 먼저 암좌 위에 용이 그려진 형상이며 이를 시작으로 그 위쪽에 다시 암좌가 전각을 받히고 있는 형상이 나타나며, 이 전각 위에 다시 용이 그려지고, 이 용은 또다시 맨 위의 전각을 받히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구조가 마치 하나의 탑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양의 전각 좌우에는 작은 원과 반원, 사각형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7) 석가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그려지고 그 앞으로 가섭과 아난이 그려져 있다.

8) 我今已爲諸菩薩, 說佛住修淸淨行.

9) 爾時, 文殊舍利菩薩, 說無濁亂淸淨行大功德已, 欲顯示菩提心功德故, 以偈問賢首菩薩.

<수미산 중턱을 일월이 들고 있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일월이 허공에서 놀고 그 그림자가 시방에 보편하면, 샘과 못, 늪이나 물그릇의 물이 그중에 다 있으니, 세상과 강과 바다 등 아니 비추는 곳이 없지 않은가>라고 설한¹⁰⁾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각의 주변에는 구름 속에 용들이 그려져 있다.¹¹⁾ 이러한 용들은 <큰 용이 자재할 때(중략) 구름을 일으켜 천하에 두루 구름을 일으키니, 그 구름의 장엄함이 각가지로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전각을 향해 용들이 물려들고 있는 형상으로 9룡이 그려지고 있다. 향우에 4룡, 향좌에 5룡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천인(天人)이 묘한 향을 땅에 바르고, 일체의 最勝主가 공양하니, 이 광명을 이루었도다. 장엄 불탑과 그곳에 이 광명을 이루었도다.(중략) 대해에 용왕들이 사천하(四天下)에 두루 구름을 일으키니, 그 구름의 장엄함이 각 가지이더라.¹²⁾ (중략) 용왕이 자재함을 모두 능히 만들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분별이 없으니 이러한 바다세계에 사는 용왕도 항상 이와 같은 부사의를 능히 나타내거늘>등의 현수보살의 비유를 그린 것이다. 용왕 외에도 보살 천부의 신중들에 대한 많은 비유를 들고 있으나, 이 변화화에서 용왕만을 주제 중에서 유독 크게 반영하여 다루고 있다. 이 시대를 산 고려시대 사람들의 용왕신앙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의 용신앙은 건국신화와도 관련이 있으니,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사」에서는 왕건에 의해 추존되어懿儀가 된 증조부였던 작제건(作帝建)이 서해의 바위돌에 남겨지게 된 사건과 서해 용왕, 금자사경과 용녀의 설화에서 고려시대 사람들이 용신앙과 얼마나 깊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금자사경을 사서하는 전통과 용신앙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¹³⁾ 「고려사절요」에서도 객상 왕창근(王昌瑾)이 저자거리의 거사로부터 사들

10) 譬如日月遊虛空 影像普遍於十方, 泉池陂澤器中水, 衆寶河海靡不現.

11) 大海龍王遊戲時, 普於諸處得自在, 興運充遍四天下,

12) 人天妙香以塗地, 供養一切最勝主, 亦以造塔及佛像 是故得成此光明,(중략) 莊嚴佛塔及其處, 是故得成此光明,(중략) 大海龍王遊戲時, 普於諸處得自在, 興運充遍四天下, 氣運種種莊嚴色,(중략) 龍王自在悉能作, 而身不動無分別, 彼於世界海中住, 尙能現此難思力.

13) 「高麗史」鄭麟趾의 「高麗世系」.

인 거울에 나타난 글에서 4년 안에 두 마리의 용이 나타나 한 마리용은 청목(靑木)속에 몸을 숨기고, 또 다른 한 마리용은 흑금(黑金) 동쪽에 형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글귀가 송악의 왕건과 철원의 공예로 비유한 문인 송함홍(宋含弘)혜석¹⁴⁾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는 건국초기부터 용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좌의 가장 구석에는 구름 속에 소와 많은 형상의 인물이 그려지고 있다. 그 밑으로는 신장상들이 그려지고 있으며, 맨 구석 아래쪽에는 산 언덕위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연화좌 위에는 좌상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경전의 내용 중에 용왕 이외에도 타화자재천, 화락천, 염마왕, 긴나라, 야차 등에 대한 비유가 거듭 되고 있으므로 이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향좌의 가장 아래쪽 구석에는 산화가 보이는 산언덕이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인물이 합장을 하고 앉아 있고, 인물 위쪽에는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이 코끼리는 「이때 보현보살이 이 계승으로 설법을 마치니, 지방세계의 하나가 열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¹⁵⁾는 내용과 「현수품」의 마지막이 보현보살의 계승으로 끝나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합장을 한 인물은 세상에서 제일가는 지혜이며, 끝없는 지혜인 이 법문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한 보현보살의 설법내용을 내용을 듣고 기뻐하는 청문자들이다. 바로 「세상의 모든 범부들이 이 법문을 믿기 어려우며, (중략) 이 법을 믿는 것이 어려우니」¹⁶⁾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14) 「高麗史節要」 제1권, 太祖 神聖大王 조

15) 時, 賢賢菩薩, 說此偈已, 十方世界一 六反震動 (하략)

16) 世間一體諸凡夫一, 信是法者甚難得(중략)

2.2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정원본 제34권)

충숙왕 3년(1334), 절첩본, 감지금자, 34.1cm×11.5cm,
변상화 감지금니, 31.1cm×19.1cm.



이 사경의 표제에는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이라고 적혀 있고, 內表題에는 「大方廣佛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라고 적혀 있어, 40화엄인 정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0화엄인 진본이나 80화엄인 주본의 경우 「입법계품」이라고만 적고 있지만, 40화엄인 정원본의 경우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라고 적고 있어 쉽게 정원본임을 알아 볼 수 있다.¹⁷⁾ 사경의 권수에 발원문을 쓰고, 그 옆으로 3페이지에 걸쳐 「입법계품」의 내용인 변상화가 그려져 있다.

변상화의 내용은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상징한 변상화의 특징¹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경전의 내용은 40화엄인 정원본의 제34권

17) 이도업, 『華嚴經思想研究』(서울: 民族史, 1998), 635-636.

18) 국립중앙박물관의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의 전면에 그려진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의 변상화와 같은 양식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부담하는 변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임에도 불구하고, 변상화가 전체적인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볼 때, 이 한권만을 단행본으로 사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¹⁹⁾

발원문²⁰⁾에 의하면 충숙왕 복위 3년(1334)에 元에서 將作院의 使를 지낸 친원계 인물 安塞罕에 의해 발원되어 사성된 작품으로 81권의 「대화엄경」을 사성했다고 적고 있어, 80화엄 1부와 이 사경 1권을 더 사성 했던 게 아닌가 여겨진다.

발원문에 잇대어 그려져 있는 변상화의 가장자리는 태선·세선을 안팎으로 굵고 그 속에 금강저·갈마로서 장식한 문양대가 있다.

발원문은 아름다운 보개 속에 쓰여 있으며, 변상화로 이어지는 향우의 부분에도 변상화와 구획 지우기 위해 태선·세선을 안팎으로 굵고 그 속에다 금강저·갈마를 따로 그려 넣고 있다.

변상화는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상하 이등분으로 그려지는 구성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현보살과 그 아래쪽에 꿰어앉은 선재동자를 중심으로 화면은 상하좌우가 거의 이등분되어 있으며, 보현보살은 변상화가 그려진 3페이지 중 가운데 페이지에 그려져 있는데, 화려하고 장엄한 연화좌 위에 앉은 좌상으로 그려져 있다.

광배 위쪽의 외곽은 화문형으로 그려져 있고 그 화문 속에는 전각이 그려져 있다. 이 전각을 바탕화면으로 하여 태선·세선으로 장식한 두개의 장방형 구획을 만들고, 그 속에 普賢十/大願王이라고 써 넣고 있다.

이는 보현이야말로 <특수>에 칠저하면서도 그 <특수>라는 것을 통해 오히

19) 千惠鳳, 「書藝·典籍」, 『國寶』 제12권 (서울: 예경산업사, 1983), 62 및 253.

20) 資善大夫將作院使安 塞罕

切念荷父母訓育之恩

皇帝

皇太后 舍人太子眷屬之德獲事

兩宮位階二品永懷罔極泛感寸誠於是鑲金寫成

大華嚴經一部凡八十一卷爰福

佛乘祈

天永年伏願燾

乾坤比於覆日月並於照臨家國含寧人神均慶

元統二年甲戌九月 日誌

려 보편에 철저함으로서 진실의 행원이 되는 모든 선지식의 통일체로서의 선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²¹⁾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법계품」은 <佛>에 대해 교설하는 주체자인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보살군이 그려지고 있다.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보살수행을 통해 이상의 경지에 이르고자하는 10바라밀을 상징하여 그린 것으로 보이는 보살들이 그려져 있다.

보현보살 위쪽으로는 횡선으로 장식되고 있고, 그 위로 十大行願을 상징하는 보살과 향로·꽃 공양을 상징하는 화병 등이 그려져 있다. 이들과 보현보살은 파상형 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들 十大行願을 상징하는 보살과 향로·꽃 공양을 상징하는 화병 등이 그려진 사이로는 화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산화를 상징한 것이다. 아래쪽 보살군이 그려진 부분에도 화문양으로 산화가 그려져 있다.

아래쪽으로는 53선지식을 찾아 구도행을 하던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향하여 꿇어앉은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좌우로도 보살군들이 그려져 있다.

위쪽의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려진 보살이나 아래쪽의 선재동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그려진 보살 모두가 世主妙嚴品에 설해지는 菩薩衆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쪽에 十大行願을 상징으로 그린 2개의 화병 중 하나는 보배나무 혹은 보배의 꽃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배의 꽃으로 金地를 장엄한다는 내용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로는 대법사가 되어서 說法自在하는 것을 상징하고, 自利利他하는 敎行法門處인 사찰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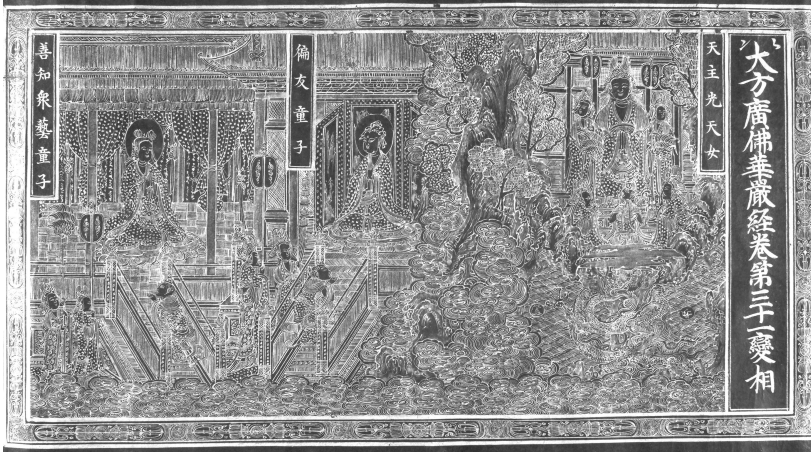
2.3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

충숙왕 6년(1337년), 절첩본, 감지은자, 31.1 cm×881.7 cm

변상화 감지금니, 31.1 cm×19.1 cm.

21) 三藏法師 安德庵, 『華嚴經講義』上 (서울: 불교통신대학, 1992), 206.

발원문²²⁾에 의해 고려 충숙왕 복위 6년인 1337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경은 표제에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一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표지의 표제 밑에 貞자를 써 넣은 것이 보여, 사경의 내용을 판독하지 않아도 40화엄의 정원본 제31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는 역시 가장자리가 안팎으로 태선·세선의 이중의 구획선 속에 금강저·갈마를 그려 넣은 문양대가 그려져 있다.

변상화에는 향우로부터 상단에 태선·세선으로 장식한 3개의 세로장방형의 명찰 속에 「天主光天女」와 「徧友童子」, 「善知衆藝童子」라는 명찰이 있다. 이는 선재동자가 제43선지식인 天主光童女와 제44선지식인 徧友童子 제45선지식인

22) 宣授大府少監同知密直司事崔安道
與妻綾城郡夫人具氏同發願銀書
華嚴大藏經所願
皇帝萬年下迫三途衆生先亡父母離苦得樂
次豫夫婦現增福壽永滅災殃未來
得生蓮華之界見佛聞法悟無生忍
如佛度一切四生之類共證菩提者
至元三年 丁丑四月 日化主皎然

善知衆藝童子를 차례로 찾아 가서 보살행과 도를 묻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이로써 40화엄인 정원본의 제31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의 향우에는 선재동자가 天主光童女라고도 하는 선지식 천주광천녀에게 찾아가 구법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천주광천녀는 양쪽으로 寶樹에 가려진 전각을 배경으로 하여 지물을 들고 서 있는 시녀들을 양쪽으로 거느리고 있다. 그 앞으로 머리를 양쪽으로 결발한 구법의 선재동자가 꿇어 앉아있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선재동자가 천궁에 가서 그 천녀를 발견하고, 발에 예배하고 그 주변을 돌며, 합장하고 앞에 서서 말하기를... (중략)>²³⁾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선재동자가 천궁의 천녀에게 어떻게 하면 보살의 行과 道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천주광천녀가 불에 대한 공양과 해탈을 설했다>는 내용까지를 그린 것이다.

가운데는 선재동자가 선지식 「徧友童子」를 찾아 간 내용이 그려져 있다.

역시 화려한 전각 안에 향좌로 돌아앉은 변우동자가 그려져 있다. 이는 <선재동자가 천궁에서 내려와 변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발에 예배하고 그 주변을 돌며, 합장하고 앞에 서서 말하기를... (중략)>²⁴⁾이라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재동자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도를 닦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선지중예에게 가라고 가르쳐 준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향좌에는 선지식 선지중예동자를 찾아간 장면으로 화려한 전각 안에 선지중예동자가 향우로 돌아앉은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선재동자가 善知衆藝童子를 찾아 갔을 때, <나는 보살해탈을 얻었으니 내 이름이 선지중예라(모든 예술을 잘 안다는 뜻이다). 나는 항상 이 문자의 어미(字母)를 지니고 부르노라²⁵⁾. (하략)>라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변우동자와 선지중예동자의 전각에는 각각 계단이 있는데 변우동자의 전각계

23) 善財, 遂往天宮, 見彼天女, 禮足圍遶, 合掌前住, 白曰--(중략) 未知菩薩, 云何學菩薩行, 云何脩菩薩道(중략), 我於彼, 供養一佛世界微塵數諸佛如來(중략) 一切所作, 我以淨嚴解脫之力, 皆隨憶念, 明了現前, 持而巡幸, 曾無懈廢.

24) 從天宮下, 漸向彼城, 至徧友所, 禮足圍遶, 合掌恭敬, 於一面立,(중략), 名善財衆藝. 次有童子

25) 我得菩薩解脫, 名善知衆藝, 我恒唱持此之字母.

단은 향좌로 그려지고, 선지중예동자의 전각계단은 향우로 그려져 있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계단이 서로 가까이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계단에는 역시 양쪽으로 결발한 구법의 선재동자가 각각 그려져 있다.

선지중예동자의 전각이 변우동자의 전각에 가려지게 그림으로서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고, 천주광천녀의 아래쪽 정토에는 삼족오를 그려 넣고 있어, 그 쪽이 동쪽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천주광천녀의 아래쪽으로는 구름 속에 운룡이 그려져 있다. 이는 경전의 내용으로 볼 때, 선재동자가 하늘의 천궁으로 가서 천주광천녀를 만나고 나서, 다음 지상으로 내려와 변우동자, 선지중예동자를 만나고 있음을 설한 경전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천궁에서 내려 올 때, 용을 타고 내려 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용이 그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공양왕 원년(1389), 절첩본, 38.1cm×16.7cm,

변상화 백지금니, 31.1cm×33.1cm.

이 사경은 발원문에 의해 恭讓王 원년인 1389년에 제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內表題에 「闍賓國三藏般若譯經」이라고 쓰고, 아래쪽에 相자가 쓰여 있어 합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삼장반야는 80화엄경의 역경사업을 한 實叉難他이다.

26) 君壽千秋都民咸樂洪武二十二年庚午三月 日高趙拜.



이 사경변상화는 두개의 변상화를 하나로 합쳐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향우의 변상과 향좌의 변상이 이가 맞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좌의 변상은 가장자리의 처리에 있어, 옆과 아래쪽에만 문양대가 그려져 있는데, 태선·세선-세선·태선의 가장자리 장식선 속에 금강저와 갈마가 그려져 있는 연속문양대가 그려져 있다. 위쪽은 보수에 의해 끊겨 나간 듯 문양대가 보이지 않는다.

향우의 가장자리는 아래쪽만 짧은 문양대가 그려져 있는데, 파상문 위로 점원문을 장식한 문양대가 그려지고, 그 아래쪽으로 짧은 세로선이 세선으로 그어져 있다. 이 세로선의 아래로 중판의 연화문이 그려져 있어, 이가 맞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위쪽의 가장자리에 보개가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양쪽의 문양이 맞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개의 사경변상을 하나로 붙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2개의 변상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용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향우의 변상은 승형(僧形-까까머리)의 인물이 법상을 앞에 두고 앉아서 권자본에 무엇을 쓰고 있다. 이러한 장면의 주인공은 『麗賓國三藏般若譯經』라고 쓴

내표제에서 찾을 수 있다. 罽賓國의 삼장반야가 경전을 번역하는 장면이거나²⁷⁾ 사경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장반야의 향좌에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역경 혹은 사경을 주문한 주문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두 인물의 뒤로 瑞雲이 표현 되어 있고, 서운(瑞雲)의 위쪽에는 빛을 발하는 放光이 표현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보개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보개에는 수식이 드리워져 있다. 보개 아래쪽으로는 화려한 끝단을 댄 아름다운 커튼이 쳐져 있어 실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좌의 변상은 수미단 위에 상황을 그린 것으로 태선·세선으로 장식한 세로 장방형 속에 「普賢爲諸菩薩及善財」라고 기록되어 있어, 보현보살과 선재동자를 그린 「입법계품」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普賢爲諸菩薩及善財」명찰의 향좌로 그려진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를 하고 있는 큰 보살이 보현보살이고, 그 연화좌 아래 꿇어 앉아 있는 동자상이 선재동자이다.

향우로는 3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입법계품」은 선재동자의 구법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기 위해 55개소 53 선지식을 만났으나, 이러한 53선지식 중에 보살로서 <불>에 대해 설하는 주최자로서 보현보살 외에 文殊菩薩, 觀音菩薩, 情趣菩薩, 彌勒菩薩이 전부이다. 관음에는 화불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 해 볼 때, 이들 4구의 보살 중 관음보살이 빠져 있다. 보수과정에서 잘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변상의 구성에 있어서 향좌 향우가 모두 독특하다.

3. 년대 불확실한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이들 년대 불확실한 사경변상화 중에는 발원문이 없어 제작 년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사경변상화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양식적인 면에서 稀貴性이 인정되는 작품이거나 월등히 아름다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은 물론 낱권으로 여러 곳에

27) 호암갤러리, 「高麗, 영원한 美」 중 朴桃花・李基善・宋殷碩의 “圖版解說,” 235.

홀어져 있지만 한질의 「대방광불화엄경」의 사경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경의 변상화, 그리고 사경변상화로서 상당히 주목되는 작품들을 정리하고자 했다.

3.1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충선왕대로 추정, 절첩본, 감지금자, 38.1 cmx18.45 cm,
변상화 감지금니, 18.4cmx38.1cm.

이 사경은 발원문²⁸⁾의 일부가 박락되어 있어, 확실한 년대에 대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사경이다. 맨 앞 글자에 至자가 보여 至元(1264-1294), 至大(1308-1311), 至順(1330-1332), 至元(1335-1340), 至正(1341-1367) 등의 연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至大년간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²⁹⁾ 변상화가 그려

28) 至□□□□□□□□□□□□□□□□

三重大匡寧仁君李也之不花
懇發丹心寫成行願品金剛經長壽經彌
陀經父母恩重經普門品各一部所集功德
皇圖永固
□□□昌衆及己身無病長生一門眷屬各消
災殃
□□□普及法□□□同成佛道者

29) 호암미술관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의 경우 발원문이 있으나 박락이 심해 년대 추정이 어려운 사경으로 세련된 표지화와 변상화가 여러 가지로 년대 추정이 어렵게 하는 점이 있어, 많은 혼란을 빚게 했다. 그러나 가장자리 문양대의 양식을 통해 충선왕대의 작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간의 혼선을 빚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서울: 미진사, 1986), 33에서는 충선왕대의 작품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경의 발원문을 살펴본 후 설명하고자 한다.
至□□□□□□□□□□□□□□□□/三重大匡寧仁君李也之不花/懇發丹心寫成/行願品/金剛經長壽經彌陀經/父母恩重經普門
各一部/所集功德/皇圖永固/ □□□昌衆及己身無病長生一門眷屬各消災殃 / □□□普及法□□□同成佛道者의 三重大匡寧仁君李也之不花 라는 기록이 있어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高麗史 百官志」에 의하면 忠烈王 34년 忠宣에 의해 改制할 때 三重大匡이 卍 品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에서 三重大匡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충선왕 2년에 벽상공신(壁上功臣)의 호를 삼중대광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그 다음은 바로 공민왕조로 넘어가서 三重大匡이라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에 忠宣王 때 제작된 사경으로 보았다. 그러나 권희경, “년대불확실한 고려사경의 표지화에 관한 연구Ⅱ,” 「書誌學研究」 제 25집 (2003.6.) 33-34.)

진 배면에 「行員品變相 文卿畫」라고 은니로 쓰여 있어, 고려사경 중에서 유일하게 畫佛師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다.



內表題에 「大方廣佛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라는 기록이 보여, 사경의

에서는 충렬왕대의 표지가 충숙왕 이후의 연화와 달라 비교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연화의 형상 중에 화심부분이 日本의 鍋島報效會의 「묘법연화경」 7권본1 부와 닮아 지정년간으로 추정했다.

다시 권희경, “「親元系 高麗寫經의 發願者・施財者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6집(2003.12), 34-35.에서 충선왕대인 지정년간의 작품으로 추정한 이유는 그 후, 계속적인 연구로 변상화에 관한 분석을 하던 중, 이 사경변상화의 양식 중에서 보타의 장막 문양이 日本 宝積寺 所藏本 「불설아다미타경범행품대비심합부」 사경의 보타와 같고, 또한 여래나 보현보살의 佛顔이 충숙왕대의 두 사경인 日本의 天倫寺本 및 羽賀寺本 「묘법연화경」에 있어서 여래의 불안들과는 달리 윤곽선이 양쪽으로 일필로 이어지다가 턱 부분에 와서 끊어지면서, 별도의 호형을 사용하여 이중턱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같았다. 여기에서 상당한 혼란을 느껴 다시 표지화 쪽에서 宝積寺本의 「묘법연화경」이나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의 분석하게 되었고, 이 사경 표지화의 가장자리가 태선・세산 당초문 세선・태선으로 가운데 당초문이 들어가는 양식은 충렬왕대에 제작된 日本 宝積寺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에서 보여 준 후, 충숙왕대의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호림미술관 소장의 충숙왕 복위 3년의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과 호암미술관 소장 충숙왕 복위 6년의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연판 끝부분의 양식도 충숙왕 복위년간의 호암미술관 소장 충숙왕 복위 6년의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과 같다고 판단되어 역시 충숙왕 복위년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 아닌가 하고 망설였다. 뿐만 아니라 「高麗史」 世家 충혜왕 2년조에 臣者 高龍普를 三重大匡로 삼았다는 기록과 관련시켜 볼 때, 지정년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더욱 혼선을 빚게 했다.

내용을 읽지 않아도 정원본의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이는 60화엄인 晋本이나 80화엄인 周本의 경우 「대방광불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입법계품」이라고만 하지만, 40화엄인 정원본의 경우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정원본임을 알 수 있다.³¹⁾

변상화의 가장자리는 안팎으로 태선·세선의 이중의 구획선 속에 금강저·갈마를 그려 넣고 있다. 변상화는 이러한 가장자리의 문양대 안에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가장자리의 장식 속에 변상화가 그려지는데, 변상의 내용은 좌우 대칭구도로 비교적 간단하다.

향우에는 보타를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앉은 비로자나불여래와 여래를 둘러싼 菩薩聖衆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수미단 위에 그려져 있다. 비로자나불의 양 옆으로 다른 성증들과 달리 조금 크게 그려진 2구의 보살이 보이는데, 협시보살인 문수·보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뒤로 여래를 중심으로 향우에

그러나 보타이나 불안의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충렬왕대에 제작된 日本 宝積寺 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 1부 제 1권의 변상화나 「불설아미타경법행품대비심합부」 변상화의 양식적 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경 표지화를 다시 분석해 보니 충렬왕대에 제작된 사경표지화의 가장자리가 태선은 은니를 사용하고 있으나 태선·세선-당초문-세선·태선으로 장식되고 있어 표지화의 가장자리 양식은 충렬왕대의 전통을 이어 받았을 수 있다고 믿었고, 연화의 전체적인 형상은 틀리나 화심의 꽃술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도 위에 금니의 점을 찍고, 이들 점을 금니 세선으로 연결한 특징은 이미 충렬왕대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후 연화문의 양식이 충숙왕대에 와서 바뀌고 있어, 반드시 후대의 작품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다 세련미가 가미된 지대년간(至大年間)의 작품일 수도 있다고 믿어 다시 至大年間으로 보았다. 이러한 확신을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 해 준 것이 바로 변상화의 가장자리 문양대에 그려진 금강저 양식이다. 금강저 중앙에 나타난 원화의 양식이 日本 天倫寺本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와 닮았고, 삼고의 양식은 日本 羽賀寺本 「묘법연화경」 7권본 1부의 양식과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뿐만 아니라 충숙왕 복위년간의 세 작품인 충숙왕 復位 3년(1334) 유상옥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 및 충숙왕 復位 3년(1334)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 충숙왕 復位 6년(1337)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권 가장자리의 금강저의 경우, 삼고와 반대방향 양쪽으로 갈고리와 같은 형상이 다시 그려지고 있어 삼고의 양식이 그 이전의 양식과는 확실한 양식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삼고의 양식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끈질기게 계속 된다. 그러나 호암미술관의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에서는 아직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역시 지대년간(至大年間)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0) 이도업, 「華嚴經思想研究」, 635-636.

31) 상계서, 635-636.

는 가섭 향좌에는 아난이 보여, <오존도>임을 알 수 있다.

보탁 위에는 가운데 향로가 놓여 있고 그 양 옆으로 공양물이 보인다. 비로자나 불이나 보살성증은 향좌의 보현보살에게로 향하고 있다.

향좌에는 역시 성중에 둘러싸여 있는 보현보살이 그려지고 있는데, 보현보살과 성증은 비로자나불을 향해 향우로 몸을 돌린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보현보살은 화려한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한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데, 보현의 대좌 옆으로 머리를 묶은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올려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입법계품」의 마지막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현보살이 十大願을 선재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설 한 후, 여래 앞에서 普賢廣大願王의 계송을 설하니 선재동자가 끝없이 뛰며 기뻐하였고, 일체보살도 모두 크게 환희 하였으며, 여래가 “잘 한다” “잘 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때 세존이 여러 성자대보살들과 더불어 이와 같은 不思議解脫境界의 탁월한 법을 물을 물을 적에 <문수보살을 제일 우두머리로 하는 여러 보살들과 6천의 비구, 미륵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현겁의 일체 대보살, 무구보현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생보처로 관정의 위치에 머무르는 여러 대보살과 나머지十方의 여러 세계에서 몰려 온 모든 대보살(중략) 모든 대성문과 諸人天의 일체세주, 천룡 야차 건달바(중략)등의 일체대중이 불의 설법을 듣고 모두가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들어 봉행했다>는³²⁾ 사경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원문에는 李也之不花라는 三重大匡 寧仁君의 이름이 보이고 있어, 사경제작자가 몽고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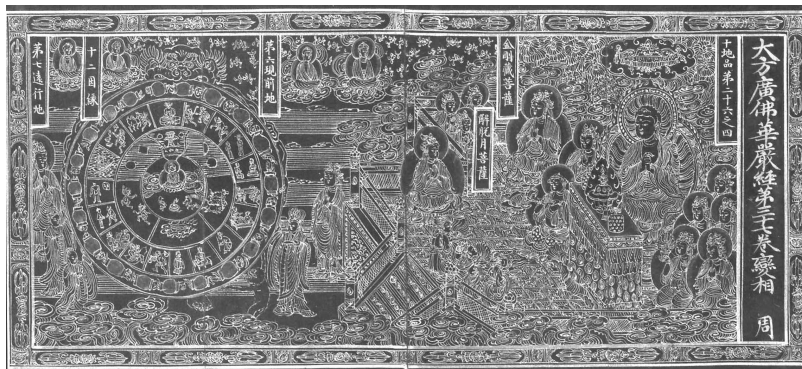
이 「華嚴經行願品」외에도 「金剛經」 「長壽經」 「阿彌陀經」 「父母恩重經」 「妙法蓮華經普門品」을 각 1부씩 사성했다는 내용이다.

32) 爾時, 普賢菩薩摩訶薩, 於如來前, 說普賢廣大願王不可思議境界勝法門時, 文殊舍利菩薩, 而爲上首, 諸大菩薩, 及所成熟六千比丘, 彌勒菩薩, 而爲上首, 賢劫一切大菩薩, 無垢普賢菩薩 而爲上首, 一生補處, 住灌頂位. 諸大菩薩(중략) 諸大聲聞, 并諸人天一切世主, 天龍夜叉乾達婆(중략) 人非人等, 一切大衆, 聞佛所說, 皆大歡喜 信受奉行.

3.2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7권

절첩본, 감지은자, 29.9cm×10.9cm,

변상화 감지금니, 19.9cm×43.4cm.



이 사경은 내표제 아래쪽으로 周자를 써 두어, 80화엄인 주본의 제37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우에는 설법도가 그려져 있다. 수미단 위에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諸菩薩이 그려져 있고, 향좌에는 제6지(地)의 내용인 윤회를 상징하는 원판이 그려져 있다.

좌상단에 6개의 명찰이 보이는데, 향우의 구석에 「十地品第二十六之四」라고 쓴 명찰이 보이고, 제2페이지에는 「金剛藏菩薩」과 「解脫月菩薩」이라는 명찰이 보이며, 제3페이지에는 「第六現前地」라는 명찰이 보이고, 제4페이지에는 「十二因緣」 「第七遠行地」라는 명찰이 보인다. 이러한 명찰들로 봐서 이 변상은 十地 중에 「第六現前地」 「第七遠行地」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설법도

설법도는 향로와 양쪽으로 공양주머니가 놓여 있는 보탁을 앞에 둔 비로자나불이 그려져 있는데 지권인을 하고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향좌의

공양물은 향로에 가려 있는 형태로 그려져 겹쳐 그리기로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다. 비로자나불의 위쪽으로는 보개가 있고 보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연화가 그려져 있다.

비로자나불 향우에 5구의 보살과 향좌에는 비로자나불의 바로 곁으로 2구 보살이 보이며, 보타 앞에도 1구의 보살이 보이고, 계단 앞에도 또 1구의 보살이 보여, 이들은 菩薩聖衆임을 알 수 있다.

◎ 「金剛藏菩薩」 「解脫月菩薩」

비로자나불의 바로 곁으로 보이는 2구 보살과는 조금 떨어져 이들보다 크게 그려진 보살이 보이는데 「금강장보살」이라는 명찰이 있어, 설법자인 「金剛藏菩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강장보살을 향해 앉은 1구의 보살 곁에도 「解脫月菩薩」이라는 명찰이 보여, 질문자인 「해탈월보살」임을 알 수 있다.

◎ 「第六現前地」 「第七遠行地」

「금강장보살」 향좌로 산화 속에 2구의 여래가 그려져 있고, 「第六現前地」라는 명찰의 향좌까지 산화는 계속되며, 「十二因緣」의 명찰의 좌우로 또 다시 여래가 1구씩 2구가 그려져 있다. 「十二因緣」은 世・去勢・間の 지혜가 다 나타나는 「현전지」의 10三昧로써 인연에 관계된 것이다. <삼계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마음 뿐인데 여래가 이것을 분별하여, 12유지(有支-가지)라 말하였다. 모두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다>라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³³⁾

산화 속에 여래를 4구 그린 것은 「보살이 이미 여러 가지 勝行을 듣고, 그 마음이 환희심을 가지고 妙華의 비를 뿌리고, 깨끗한 광명을 놓아 보주를 흠어, 여래를 공양하고 善說을 칭송한다」는 내용³⁴⁾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4페이지 상단 구석에 「第七遠行地」라는 명찰이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 12인연의 윤회를 나타낸 원판이 그려져 있다.

33) 三界所有, 唯是一心, 如來於此, 分別演說, 十二有支皆依一心, 如是而入.

34) 菩薩既聞諸勝行, 其心歡喜雨妙華, 放淨光明散寶珠, 供養如來稱善說.

원판은 4개로 구획 지어져 있는데, 제일 중앙 제1의 원 속에는 여래 좌상이 그려져 있다. 여래의 좌우에는 운문이 그려져 있고, 여래의 두광으로부터 뻗어나간 두 줄의 빛줄기는 제2의 원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 공간 안에는 누각을 그리고 있다. 이 누각의 양쪽에는 작은 원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데, 이는 수미산 중턱으로 일월이 돈다는 내용 중에 나타난 일월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⁵⁾ 여래의 아래쪽 중앙에는 뱀, 향우에는 돼지, 향좌에는 새가 그려져 있다. 축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제2의 원은 상하로 2등분 되어 있는데, 위쪽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래의 두광으로부터 나온 두 줄기의 빛이 만든 공간에 그려진 누각 밖으로는 횡선을 그어 누각의 향우에는 원과 반원이 그려지고 있고, 아래쪽의 반원은 삼등분하여, 가운데는 타고 있는 불을 그려, 지옥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지옥을 중심으로 향우에는 말, 소, 양을 그려 축생임을 나타내고 있고, 향좌에는 귀신형상을 그려 아귀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3의 원은 18등분하여 각각 그림을 그려 넣고 있는데, 18계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18계란 6根³⁶⁾으로부터 色, 聲, 香, 味, 觸, 법을 의미하는 6境을 일으키게 하며, 객관적 만유의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보고(色識), 듣고(聲識), 냄새를 맡고(香識), 맛보고(味識), 닿고(觸識), 알고(法式)하는 인식작용의 6識을 의미하는 것을 합한 18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변상에서는 18계를 육도³⁷⁾와 인간의 일생으로서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18등분된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좌의 가운데 그려진 망념의 대해를 상징하는 불바다와 한척의 배가 그려진 부분을 출발점으로 변상은 아래쪽과 위쪽으로 그려져 있다.

망념의 대해를 상징하는 불바다와 한척의 배가 그려진 위쪽으로 중생의 業因에

35) 張忠植, 「고려관화의 세계」(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도 15> 참조.

36) 眼根, 耳根, 鼻根, 舌根, 信根, 意根,

37) 地獄, 餓鬼, 畜生, 阿修羅, 人間, 天.

따라 윤회하는 길을 나눈 六道가 그려지는데 위쪽에서 향우로 이어지며 그려진다.

- ① 망념의 불바다를 상징하는 파도 문양 위에 배는 위협스럽게 뒤집힐 듯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지옥의 상징으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음식 그릇을 앞에 두고 있는 귀신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아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말과 이 말을 끄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축생의 세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의자에 앉은 형상을 그려져 있는데, 형상은 인간의 모습이나 머리칼이 전부 위로 솟구쳐 있어 괴물이라는 느낌이 든다. 아수라로서 다음 칸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⑤ 두 손을 든 인물과 손을 든 이 인물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는 아수라와 제석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육도의 아수라로 보인다.
- ⑥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고,
- ⑦ 이어서 사모를 쓴 인물과 그 앞에 여인 같이 생긴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전부 육도 중 인간도로 보인다.
- ⑧ 좌대 위에 앉은 여래와 의자상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의자상은 미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육도의 천상도에 해당한다.

망념의 불바다 아래쪽도 향우로 돌아가며, 인간의 일생이 그려지고 있다.

- ⑨ 사람을 그렸는데 목까지만 그리고 얼굴은 그 옆에다 따로 그리고 있다. 이는 인연을 통해 인간이 태어남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 ⑩ 한사람의 남자와 이를 대하고 서 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어. 남녀의 연분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 ⑪ 대례 상을 앞에 두고 사모를 쓴 남자와 여자를 그려, 혼인의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 ⑫ 자리를 깔고 아이를 어르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 아이의 출산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 ⑬ 장대 양끝에 짐을 걸고 메고 걸어가는 인물을 그려, 勞作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 ⑭ 관을 쓴 남자를 그려, 입신양명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 ⑮ 한 남자가 평상위에 앉아 있는 형상으로 한 다리는 세우고 다른 한 다리는 옆으로 눕힌 형상으로 그려져 官界에서 물러 난 후의 모습으로 보인다.
- ⑯ 늙어 꼬부러진 모습으로 그려져, 老, 病, 死의 첫 장면인 늙음이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⑰ 다음은 침상에 누워 있고 이를 간호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려져 이것이 병든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⑱ 두 사람이 의해 상여를 메고 가는 형상을 그리고 있어, 죽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육도에다 인간의 일대기를 10장면을 보태어 18장면이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 원에는 20개의 형상이 그려지고 있는데, 사람도 그려지고 소, 말, 뱀 등의 동물도 그려지고 있는데, 한결 같이 머리 부분과 다리부분 혹은 꼬리부분만 나타나고 몸통부분은 원통 속에 들어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형상들은 6근 작용으로서 인식하는 인간의 망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윤회의 원판을 중심으로 향우에는 2구의 보살과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데, 한 보살과 원숭이가 이 원판에 손을 대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어, 원판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판의 향좌에는 보살과 천신, 사미 등이 그려지고 있는데, 보살은 합장을 하고 있으며, 천신, 사미는 역시 원판에 손을 대고 있어 원판을 돌리고 있다. 이 원판이 야말로 인간사의 일면을 그린 것이며, 인간이 벗어나고자 하는 윤회의 원판임을

알 수 있다.

3.3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

절첩본, 감지은자, 28.3×758.2 cm,

변상화 감지금니, 22.3cm×55.5cm.



이 사경은 변상화가 그려진 맨 앞 머리에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六卷變相」이라고 쓰고, 그 아래로 周자가 쓰여 있는 내표제가 있어, 이 사경이 80화엄경인 주본의 제46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는 내표제와 곁에 붙여서 역시 두 줄의 세선으로 구획을 만든 세로장방형 속에 「佛不思議法品三十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제46권·제47권이 <佛不思議法品>이다. 변상화에는 이 <불부사의법품>내용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우에는 수미단 위의 설법도가 그려지고, 향좌에는 노사나불이 그려져 있다

변상화의 가장자리는 안팎으로 두 줄의 세선을 그은 속에 금강저와 갈마를 그려 넣은 문양대가 그려져 있다.

◎ 설법도

향우의 설법도는 2페이지 까지 그려져 있다.

수미단 위에 보탁을 앞에 둔 비로자나불과 비로자나불의 양쪽으로 2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협시보살인 문수·보현보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우에는 협시 이외에도 5구의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비로자나불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보살성중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로자나불의 향좌의 협시 옆으로 비로자나불과 거의 같은 크기로 정면 향의 보살이 있는데 이는 <佛不思議品>의 첫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佛의神通력을 통달하고, 교설하게 된 청연화장보살을 강조하여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⁸⁾

비로자나불의 두광 위쪽으로 보개가 보이는데 일부가 비로자나불의 두광에 가려 있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공간감을 표현하려는 겹쳐 그리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보개를 중심으로 연화가 가득 차게 그려져 있다.

◎ 노사나불과 如來衆

향좌에는 노사나불이 그려져 있는데, 주변은 산화와 운문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노사나불의 상부와 향우향좌의 아래위로 5구씩의 여래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佛身이 둘이 아닌 하나이지만, 가지가지의 몸을 나타내어, 세상에 가득 차게 한다」³⁹⁾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47권

절첩본, 감지금자, 33.2cm×11.1cm,

변상화 감지금니, 21.7cm×43.9cm.

38) 皆悉具足, 承佛神力, 告蓮華藏菩薩言 (하략).

39) 佛子, 諸佛世尊, 有無量住, 所謂常住大悲, 住種種身, 作諸佛事



이 사경변상화 역시 변상화의 첫머리에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七卷變相」이라고 쓰고 그 아래로 周자가 쓰여 있는 표제가 있어, 80화엄경의 제 47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상화의 가장자리는 안팎으로 세선-태선-세선으로 장식된 속에 금강저와 갈마가 그려져 있는 문양대로 장식되고 있다.

내표제에 잇대어 안팎의 윤곽선이 태선-세선으로 장식된 세로장방형 속에 「佛不思議品三十三之二」라고 기록한 명찰이 보인다.

사경변상화는 이 명찰의 내용인 「불부사의품」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향우에는 설법도가 그려지고, 향좌에는 11면 관음이 그려져 있다. 수미단 위의 정면향 보살 옆에 「靑蓮華藏菩薩」이라는 명찰이 보이고, 다시 제4페이지에 「不思議法」이라는 명찰이 있다.

◎ 설법도

설법도는 앞에서 본 통도사 정보박물관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수미단 위에는 보살에 둘러싸인 비로자나불이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향로와 향로의 양 옆으로 공양물이 놓여 있는 보탁을 앞에 두고 있다. 뒤쪽에는 화려한 전각이 그려져 있으며, 위쪽에는 보개가 있고, 보개 옆으로는 연화로 가득 차

있다. 이 변상화에서는 비로자나불의 향우로 정면향을 하고 있는 보살 곁에 「靑蓮華藏菩薩」이라는 명찰이 보여, 이 보살이 교설자인 靑蓮華藏菩薩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1면관음상

향좌에는 연화좌 위에 앉은 11면관음이 그려져 있다. 11면관음의 위쪽에는 여래중(如來衆)이 그려져 있다. 이 여래중에서 나온 한 줄기 빛은 아래쪽으로 내려 비쳐, 11면관음의 광배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래중은 운문에 둘러싸여 있으며, 3가닥의 서광이 이들 여래중을 가리고 있는데, 서광의 아래쪽에서 나선형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위쪽은 3가닥으로 갈라져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형상이다.

11면관음을 그린 것은 10종의 청정법과 10종의 一切智住를 설명함에 있어 「여래의 지나간 인연을 일체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하고, 모든 불의 청정하고 훌륭한 행을 일체보살이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11면관음일체보살은 이러한 일체보살의 대표보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음보살은 원래 변화보살이기 때문에 일체보살의 대표로 그려졌다고 본다.

위쪽의 여래중은 모든 여래를 상징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5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59 권

절첩본, 감지금자, 11.1cm×31.3cm,
변상화 감지금니.

이 사경 역시 內表題에 이어 역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東晉의 인도승 三藏佛馱跋陀라고 기록되고 있어, 晋本 「화엄경」 제59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해도 변상화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진본 「화엄경」 제59권으로 「입법계품」 제16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변상화의 앞머리에 「大方廣佛華嚴經第五十九變相」이라는 변상화의 표제에 이어, 금니의 태선·세선으로 가장자리를 그은 장방형의 구획 속에 「入法界品之十六」이라고 기록된 명찰이 보이기 때문이다.



4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변상화에는 태선·세선으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문양대가 있다.

변상화에는 제목을 기록한 명찰 외에도 3개의 명찰이 더 보이는데, 제2페이지 끝에 「彌勒讀菩提心」이라는 명찰이 있고, 제3페이지에는 향좌에 조금 치우쳐서 「彌勒彈指開門」이라는 명찰이 보이며, 제4페이지 향좌 구석에는 「善財入大樓閣」이라는 명찰이 보여, 선재가 德生童子和 有德童女에 인도되어 미륵보살에게로 와서 구법 할 때의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페이지에 걸쳐 석가성중도가 그려지고 있는데, 미래불로서 보관을 쓴 미륵이 1·2페이지 중간에 그려지고 있으며, 미륵의 발아래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다. 미륵이 보관을 쓴 형태로 그려진 것은 「입법계품」내용 중에 선재동자가 만난 미륵보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관을 쓴 미륵보살로 나타나고 있다. 미륵불의 광배 뒤쪽은 운문으로 채워져 있다. 그 위쪽으로는 화문이 넓게 그려져 있는데, 이 화문의 한 가운데 입식의 연화가 그려져 있다. 미륵의 향우에 2구의

보살이 향좌에는 3구의 보살과 신중상 2구가 그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가 향좌를 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데, 운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운문 위쪽으로 산들이 그려져 있다. 산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은 세필의 황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2구의 신장상이 그려진 사이의 공간 위쪽에「彌勒讀菩提心」이라는 명찰이 보인다. 이는 미륵보살이 118가지의 비유를 들어 보리심의 공덕을 말 한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⁴⁰⁾

제3페이지에는 2구의 신중상 중, 향좌의 신중상을 중심으로 2구의 보살이 상하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 2구의 보살과 삼각구도로 향좌에 미륵보살이 위치하고 있는데, 向右手에는 연화를 들고, 向左手는 장엄의 누각을 가리키고 있는 듯 손을 펴서 장엄누각을 가리키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미륵불의 아래에도 선재동자가 그려지고 있는데, 미륵을 돌아보면서 제4페이지에 그려진 장엄의 누각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미륵보살이 118가지의 비유를 들어 보리심의 공덕을 말 한 후, 오른 손을 앞으로 내어 손가락을 튕기자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리고, 미륵이 선재동자에게 명령하기를 그 누각 속으로 들라하였다. 선재동자가 명을 따라 누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彌勒彈指開門」의 명찰 내용이 그려진 것이다.⁴¹⁾

제4페이지에는 누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善財入大樓閣」이라는 명찰을 그린 내용으로 선재가 장엄의 누각 속으로 들어가자 문은 곧 닫혔고, 그 궁전은 광대하기 한량없는 허공과 같은 크고 아름다운 전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그 전각에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대각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入法界品之十六」의 내용이 그려진 것이다.⁴²⁾

40) 爾時, 彌勒菩薩摩訶薩, 如是稱歎善財童子, 種種功德, 令無量百千衆生, 發菩提心已, 告善財言.(후략 - 이후 보리심은 비유가 이어지고 있다) 猶如種子, 猶如良田, 猶如大地, 猶如大風, 猶如淨日, 猶如淨目, 猶如大道, 猶如正濟, 猶如大車, 猶如門戶, 猶如宮殿, 猶如園苑, 猶如舍宅, 猶如慈父, 猶如慈母, 猶如乳母, 猶如善友, 猶如君主, 猶如帝王, 猶如大海, 猶如須彌山 등의 비유를 들고 있음.

41) 時, 彌勒菩薩, 前指樓閣, 彈指出聲, 其門即開, 命善財入

42) 見其樓閣, 廣博無量, 同於虛空, 阿僧祇寶, 以爲其地, 阿僧祇宮殿, 阿僧祇門闥, 阿僧祇牕牖, 阿僧祇階陛, 阿僧祇欄楯, 阿僧祇路, 皆七寶成, (하략).

3.6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12 권

절첩본, 상지금자, 30.8cm×10.6cm,

변상화 상지금니, 19.5cm×42.4cm.



이 사경은 內表題에 이어 역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東晉의 三藏佛馱跋陀라고 기록하고 있어, 晉本 「화엄경」 제12 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우의 맨 위쪽으로「十行十七之二」라는 명찰이 보인다.

「十無盡藏品」의 내용으로 10종의 十無盡藏의 이름이 열거 되고 있어, 변상화에서 유난히 명찰이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 설법도

설법도는 수미단 위에 주존인 비로자나불이 보탁을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앉아 있다. 이와 더불어 <불>의 주변을 둘러싼 聖衆과 보탁 앞에는 청문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보탁 앞에는 「十無盡藏品十八」이라는 명찰이 보여, 보살이 불도를 닦는 十行의 무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두자씩 쓰인 10개의 명찰이

바로 무진장하게 닦아야 할 십행이라는 것을 변상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구도로 그려져 있다. 수미단 안쪽으로 연화좌에 앉은 보살이 보이고, 이 보살의 향우와 향좌에 각각 명찰이 보이는데, 향우에는「功德林菩薩說十行偈」라고 적은 명찰이 보이고, 향좌에는「功德林菩薩說」이라고 기록된 명찰이 보인다. 이는「공덕림보살설십행계」라는 기록이 <공덕림보살이 또다시 여러 보살에게 고하기를 붙자여, 보살마하살에는 십장의 종류가 있으니 (하략)>⁴³⁾라는 내용으로 공덕림보살이 十藏에 대해 계송으로 여러 보살들에게 알렸다 >는 내용을 나타낸 變이다. 공덕림보살이「공덕림보살설」「공덕림보살설십행계」사이에 그려지는 變을 대신한「공덕림보살설」이란 명찰이 보인다. 이러한「공덕림보살설」의 명찰에 이어 十藏의 명찰과 그에 대한 <변>이 그려지고 있다

◎ 十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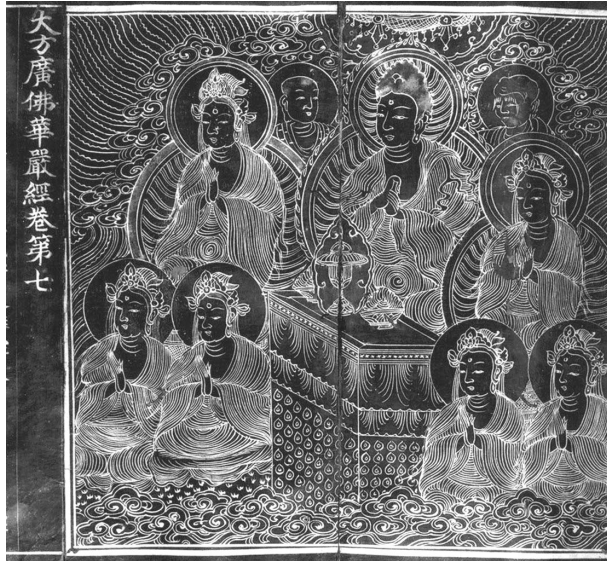
「공덕림보살설」향좌에는「證成菩薩衆」이라는 명찰이 있다. 이 「증성보살중」의 향좌에는「십장」의 보살마하살이 상·중·하로 그려져 있다. 그 옆에 각각「십장」의 명호가 기록되고 있는데, 「증성보살중」의 향좌 위쪽으로부터「施藏」「念藏」「聞藏」「持藏」의 명찰이 보이고, 중간에는「信藏」「戒藏」「愧藏」「慚藏」의 명찰이 보이고, 아래쪽에는「辨藏」「慧藏」이 보이며, 각각 그에 맞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십장」은「염장」아래쪽이나「괴장」향좌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보타 위에 경전을 펴 두고 앉아 있는 거사상이나 동자상과 더불어 보살상을 그리기도 하고, 「변장」「혜장」과 같이 여래를 향하고 앉은 보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신장」이나「계장」과 같이 연화좌 위에 앉은 보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보살들 사이도 居士像 혹은 동자상들이 그려 점묘의 산화와 그려 넣기도 하고, 보살들 아래쪽에 연화를 그려 넣기도 하며, 복잡하게 그리고 있다.

3.7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7권

43) 爾時, 功德林菩薩, 復告諸菩薩言, 佛子, 菩薩摩訶薩, 有十種藏(중략).

절첩본, 감지은자, 변상화 감지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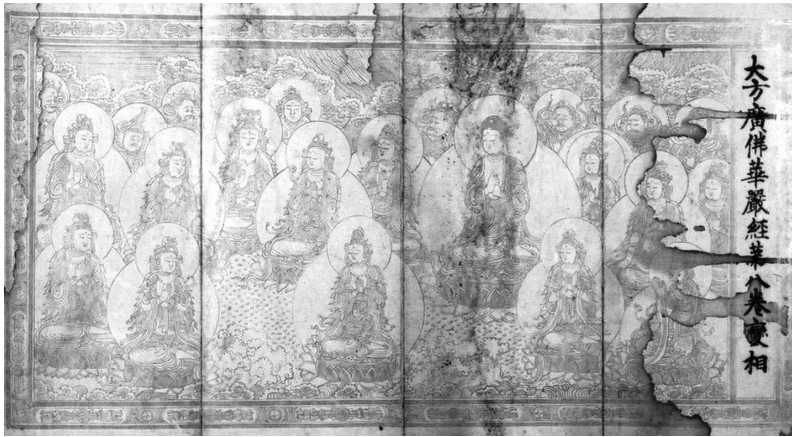


권지인의 비로자나불이 보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 보탁 위 중앙에는 향로가 놓여 있고, 좌우로는 공양완이 놓여 있다. 여래의 양쪽으로 문수와 보현이 그려지고, 이 협시 뒤쪽으로 가섭과 아난이 그려져 있어 <五存圖>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탁좌우로 보살이 2구씩 더 그려져 있어, 설법도만 그려진 예라고 할 수 있다.

3.8 내소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8권

절첩본, 백지묵서, 35.2cm×11.9cm,

변상화 백지금니, 20.8cm×48cm.



4페이지에 걸쳐 설법도가 그려져 있는데, 제2페이지에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이 그려져 있고, 그 외의 여백에는 보살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4.년대 확실한 기타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고려사경 중에서 「묘법연화경」과 「대방광불화엄경」을 제외한 사경변상화를 가진 사경의 수는 많지 않다. 이러한 사경변상화는 드물기 때문에 희기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전의 내용들을 고려 사람은 어떻게 도해하여 변상화로서 완성시켰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고려사경 변상화의 전체 줄기를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4.1 日本 太平寺 소장 「金剛般若波羅密經」

충정왕 3년(1351), 절첩본, 감지금자, 26.1cm×11.1cm.

변상화 감지금니, 19.2cm×44.2cm.

日本 豊橋 太平寺 소장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발원문⁴⁴⁾에 지정(至正) 11년이라는 기록에 의해 충정왕 3년(1351)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표지에 상하로 잘려 나간 흔적이 있고, 경전 전체의 상하 길이와 변상의 상하 길이의 비례가 맞지 않아, 사경의 상하 여백이 잘려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표지의 경우 상하가 잘려 나가, 표지화 연구의 자료로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변상화는 완벽하여 고려사경의 내용분석과 양식분석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려사경 중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변상화의 작례가 흔치 않아 「금강반야바라밀경」 변상화의 내용과 양식 분석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라 아니 할 수 없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전체가 1권으로 되어 있으며, 姚奏의 鳩摩羅什에 의해 처음으로 번역된 밀교경전이다.

이 사경변상화는 석가모니불이 舍衛省의 祇園精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44) 以此功德普廻向

上報四恩下濟三有早明般若讀佛慧命利樂有情和謹和

至正十一年辛卯十月 日誌

施主通議大夫肅政兼訪使月城府院君崔濬

宣授東陵郡夫人金氏

뒤아야 할 불도에 대한 須菩提의 질문에 대해 석가의 대답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상화는 4페이지에 걸쳐 그려져 있다.

향우에는 석가 설법도가 2페이지 반에 걸쳐 그려져 있다. 수미단 위에는 보타를 앞에 둔 석가여래가 그려지고, 그 양 옆으로는 비구가 각각 그려지고 있다. 이는 석가가 사위국의 祇樹給孤獨園⁴⁵⁾에서 수보리를 비롯한 1천 2백 50 명의 비구들을 상대로 교설하였다는 내용을 상징한 비구들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⁶⁾

석가여래 앞, 보타 아래쪽으로는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을 내놓은 인물이 방석을 깔고 꿇어앉은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수보리이다.⁴⁷⁾ 이는 세존이 1천 2백 50명의 비구들과 함께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鉢을 들고 舍衛大城에 들어가 그 城中에서 걸식을 마친 다음, 의복과 발을 씻기고 세족한 후, 자리를 펴고 앉았을 때, 대중 중에 앉아 있던 長老 수보리가 일어서서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을 내놓은 형상으로 땅에 엎드려 합장공경하고 善男子 善女人이 아늑다라삼막삼보제심을 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수보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한 세존의 교설이 바로 이 경전의 내용이며, 변상화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그린 것이다

여래를 둘러싼 聖衆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래 양옆으로 2구의 비구가 그려져 있고, 비구를 중심으로 한 앞쪽으로 사천왕이 그려져 있으며, 비구를 중심으로 한 뒤쪽에 八金剛衆이 그려져 있고, 향좌의 비구 옆으로는 四菩薩이 그려져 있다.

향좌에는 많은 입상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설법도의 수미단 위의 인물들 보다 작게 그려져 있다. 앞에서 세 번째 줄에는 왕관을 쓴 인물이 보이며, 이 왕관을 쓴 인물 앞으로도 2구의 관을 쓴 인물이 그려져 있고, 왕관을 쓴 인물 뒤로도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이들 인물들은 사물현상을 차별적 모습으로 보지 말고 진실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세존의 교설의 내용으로 차별적 모습을

45) 祇園精舍를 뜻함.

46)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與比丘衆一千二百五十人，(중략) 時長老須菩提，在大衆中，

47) 俱爾時世尊，食時着衣持鉢，入舍衛大城乞食，於其城中，次第乞已，還至本處，飯食訖收衣，鉢洗足敷座而坐 時長老須菩提，在大衆中，即從座起，偏袒右肩右膝，着地合掌恭敬，(중략) 善男子 善女人，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應云何住，云何降伏，其心佛言。(하략)

가진 개별적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바로 이러한 차별성을 대표하는 사위성의 국왕과 시자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⁸⁾

4.2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상권

공민왕 6년(1357), 절첩본, 감지은자, 25.9cm×11.24cm,
변상화 감지금니, 22.1cm×66.6cm, 보물753호.



이 사경은 전면에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과 「文殊上乘無生界法」이 실려 있고, 배면에는 「六租和尚法寶壇經」이 실려 있는데, 년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대방광원각수다라니요의경」의 말미에 실려 있는 발원문이다. 이 발원문⁴⁹⁾에 지정 17년이라는 기록으로 공민왕 6년(1357)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8) 과거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권희경, 미진사, 1986)에서는 이 향좌의 인물들을 금강밀적을 연속적으로 그렸다고 보았으나, 「東アジアの仏たち」(奈良國立博物館, 平成 8년, p.285)에 의하면 사위국왕과 그 시자로 본 관점이 더 합당하다고 보아 이 설에 따르기로 함.

49) 將此性空德圓滿上報佛祖之恩下濟三塗之苦
端爲

祝筵 當今主上壽萬年 公主 王后壽壽年十方檀信增福風調雨順國泰民安

佛日增輝法常輪者

至正丁酉潤九月 日 持經主 戒衍

施主崔勉一藏

同願金清戒心

사경변상화는 다른 변상화와는 달리 가장자리의 문양대가 2중으로 장식되고 있다는 점과 변상화가 6페이지에 걸쳐 그려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장자리에는 2중의 문양대가 그려져 있는데 바깥쪽은 금강저·갈마의 문양대이고, 안쪽의 문양대는 당초문양이다. 맨 바깥쪽에 태선·세선을 그어, 그 속에 금강저와 갈마를 그려 넣고, 다시 세선·태선·세선을 안팎으로 그려, 그 속에 파상문과 그 파상문의 양쪽에는 원문을 그려 넣고 있어 특징적이다.

이 변상화는 「大廣圓覺修多羅了義經變相」이라는 내표제가 있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방광원각수다라니요의경」은 「圓覺經」 혹은 「圓覺修多羅了義經」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세존이 神通 大光明藏 삼매에 들어 正修하니, 문수·보현 보살을 비롯한 12보살이 함께 하였으며, 12보살의 질문에 대해 세존이 시방에 편재되어 가득 차 있는 삶과 죽음이 없는 圓覺·妙心 가질 수 있는 수행방법에 대해 답한 내용이다.⁵⁰⁾

변상화의 첫 페이지에는 神將像이 그려져 있어, 日本 宝積寺本 양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5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변상은 위쪽에 卍자가 쓰여 있는 盧舍那佛이 한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노사나불은 보관을 쓰고 있는 형상이지만, 노사나불 위쪽으로 쓰여 있는 卍자로 인해 불화의 초심자라 할지라도 이 상이 여래라는 것을 눈치 채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들 삼존상의 위쪽 향좌에는 한 손으로 향로를 바쳐 든 비천과 향우에는 화반을 바쳐 든 비천이 그려져 있다.

노사나불의 향우에는 獅子座 위에 앉은 문수가 그려지고, 향좌에는 象座에 앉은 보현보살이 그려져 있다. 노사나불 앞에는 가운데 향로와 그 양 옆으로 공양물이 놓여 있는 보탁이 보인다. 보탁 앞에는 뒤로 돌아 앉은 형상의 보살이 그려져

同願書寫□□

50) 如是我聞, 一時婆伽婆入, 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중략) 現諸淨土, 如來菩薩摩訶薩, 計萬人俱, 其名曰 文殊菩薩, 普賢菩薩, 普眼菩薩, 金剛藏菩薩, 彌勒菩薩, 清淨慧菩薩, 威德自在菩薩, 變音菩薩, 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 圓覺菩薩, 賢善首菩薩.

있는데, 발끝에 의존하여 두발을 세우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삼존상의 아래쪽으로는 좌우로 정면향의 보살이 각각 5구씩 10구가 그려져 있다. 이들 10구의 보살과 노사나불 옆으로 그려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합하면 세존에게 청문한 12 보살이 된다. 이들 정면향의 보살들 옆으로 측면향의 보살도 좌우로 각각 5구씩으로 10구가 그려져 있다. 이들은 12보살로 대표되고 있는 1만의 보살을 상징한 것이다.

삼존상의 좌우에는 이 경전을 수호 할 것을 서원한 대범천왕을 비롯하여, 28천왕, 수미산왕, 호국천왕, 대력귀왕(大力鬼王)과 천용, 귀신 팔부신중, 제천왕, 범왕 등으로 이 경전을 지키라는 명에 대환희로 받아들이고 봉행 했다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⁵¹⁾.

4.3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金剛般若·普門品發願合部」

공민왕 20년(1371), 절첩본, 백지금자, 23.1cm×9.1cm,
변상화 백지금니, 17.4cm×46.1cm.

이 사경은 「金剛般若波羅密茶經」과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의 합본으로 발원문⁵²⁾에 洪武 4年 辛亥 7월에 제작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공민왕 20년(1371)에 제작된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鳩摩羅什에 의해 번역된 것임을「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이라고 쓴 내표제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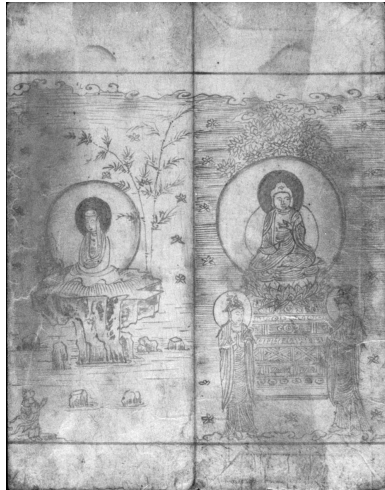
이 경전은 「금강반야바라밀다경」과 더불어 「묘법연화경」 제7권 중에서도 제

51) 白佛言世尊, 若後末世, 一切衆生, 有能遶三匝(중략)爾時, 有大力鬼王, 名吉槃荼, 與十方鬼王, 卽從座起, 頂禮佛足, 右遶三匝.

52) 洪武四年 辛亥 七月 日誌
施主比丘尼 妙智
同願比丘尼 妙殊

25품인「관세음보살보문품」만을 사경했다는 것을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다.

변상화는 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려지고 있는데, 향우에는 삼존상이 그려져 있고, 향좌에는 善財童子歷參記 중에서 <觀世音菩薩親見圖>가 그려져 있다.



향우의 삼존도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대표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삼존도는 석가삼존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래는 화려한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형상이며, 대좌 아래 양옆으로 협시의 보살이 그려져 있다. 여래 뒤쪽으로는 보리수 잎이 보이고, 나머지 공간은 횡선으로 처리되며, 횡선 위에 산화를 나타내는 꽃들이 드문드문 그려져 있다.

관세음보살 친견도는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으로 관세음보살을誦하면 그 어떤 재난도 면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상화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다니던 때, 28번째 보문국에 가서 관음을 만나 아승기법문을 이루었다는 내용만을 그리고 있어, 「관음보살친견도」라 할 수 있다.

「선재동자 관세음보살 친견도」는 고려의 「수월관음도」⁵³⁾에서 보여주는 전통

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바위 위에 걸가부좌한 양유관음을 그리고, 바위로부터 2줄기 대나무가 나 있는 형상이며, 아래쪽으로는 물이 그려져 있고, 향좌의 맨 구석에는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다.

이 쌍죽은 「三國遺事」의 「洛山二大聖人 觀音・情趣, 調信」조에 <의상이 동해 어느 해변 굴속에 관음보살이 산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낙산이라고 하였다>는 내용과 <齋戒 한지 7일 만에 座具를 새벽 물위에 띄워 보내고, 龍天八部가 굴속으로 안내해, 들어 가 수정염주 한 묶음을 내주어 받아가지고 물러나오자 동해용이 또한 如意寶珠 한 알을 바치므로 이를 들고 나와 다시 7일간 齋戒하였더니 관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앉았던 자리에 雙竹이 날 것이니, 그 곳에 불전을 짓도록 하라>고 하여, 의상법사가 이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쌍죽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기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충렬왕시대에 一然은 이러한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기록할 만큼 화엄학의 비조였던 의상을 불교계에 깊이 각인 시키고자 했을 것이고⁵⁴⁾, 이 쌍죽에 관한 이야기는 충렬왕대로부터 불화 중 「선재동자 관음친견도」에 유입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의상의 쌍죽이 선재동자의 구법과 연결되어 「선재동자 관음친견도」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의상과 관음, 선재를 통한 구법사상의 실현과 의상의 화엄학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충렬왕 당시 일연을 중심으로 한 고려 불교계의 한 동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본다. 쌍죽은 충렬왕 이후 충선·충숙왕대의 많은 「선재동자 관음친견도」의 양식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두 폭으로 구성된 이 경전의 변상은 일견 할 때 사경변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성된 2종류의 불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그만큼 회화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고려사경 변상화에서는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53) 관음과 관음의 발아래 선재동자가 그려진 그림을 일본에서는 「양유관음화」라고 칭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수월관음」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선재동자가 55개소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도를 구하는 장면 중 제28번째 관자재보살의 내용이므로 이는 「선재동자 관세음보살 친견도」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줄로 안다.

54) 「삼국유사」의 제3권의 「塔像」의 前後所藏舍利조에 의하면 二十一年甲申 修補國清寺金塔, 國主與莊穆王后라는 기록이 보여, 충렬왕 때도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년대 불확실한 기타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

년대 불확실한 기타사경으로 변상화를 가진 사경은 2점의 「梵網經菩薩戒品序」가 있다.

5.1 호암미술관 소장 「梵網經菩薩戒品」

질첩본, 감지은자, 17.6 cm×6.7 cm,

변상화 감지금니, 12.3×26.7 cm.



이 사경은 내표제에 「梵網經菩薩戒品序」라고 기록되고 있으나, 원제목은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⁵⁵⁾이다.

「범망경보살계품서」에 이어 懶翁和尚과 永嘉和尚의 발원문이 이어지고, 칠언 절구의 시가 네 편 실려 있다.

변상화는 3구의 여래 중,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보살형의 불존은 노사나 불이다. 양쪽의 여래는 수백억의 석가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55) 我今盧舍那, 方座蓮花臺, 周匝天花上, 復現千釋迦 및 爾時, 天花上佛, 千百億釋迦, 從蓮華藏世界, 赫赫獅子座

이러한 3구의 여래가 보살종과 신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형상이다.

보살대중이 보관을 쓰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불성을 가진 일체중생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 일체의 의식과 색심이 불성계 중에 있으니 마땅히 인연이 있으므로 범신이 항상 머무를 수 있다」⁵⁶⁾는 경전의 序分중에 있는 내용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5.2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梵網經菩薩戒經」

절첩본, 감지은자, 26.3 cm×9.9 cm,

변상화 감지금니, 17.3×39.47 cm.



이 사경 역시 내표제에 「梵網經菩薩戒品序」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상화는 3구의 여래가 보살, 신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대부분의菩薩衆이 보관을 쓰지 않은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호림박물관 소장의 「법망경보살 계품」과 같다. 다만 노사나불의 좌우에 나타나고 있는 여래가 작게 그려진 점이 다르다.

56) 一切衆生, 皆有佛性, 一體意識, 色心是情是心, 皆入佛性戒中, 堂堂尙有因故, 有堂堂常住法身.

그러나 이 사경변상화가 위의 「범망경보살계품」과 확연히 다른 점은 제4페이지에 좀 더 설명적인 내용이 첨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설법주인 노사나 불과 2구의 여래가 보살, 신중들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서도 얼마간 차이를 보이지만 명찰의 내용도 거의 序分の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용맹장의 내용만은 서분의 내용이 아니다.

3페이지에 「法寶藏」이라는 명찰이 보이고, 향우에는 전각이 그려져 있다. 이는 범보의 세계로 연화장세계⁵⁷⁾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페이지 위쪽에는 가운데 放光에 싸인 전각이 있고, 이 전각 양쪽으로 보살대중이 보인다. 이 빛나는 전각은 摩醯首羅天王宮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전의 서분에 기술된 내용 중에서 세존의 十住處 중에서 마혜수라천왕궁을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연화장세계로부터 적멸도량에서 坐金剛花光王座에 앉고, 또 마혜수라천궁에 이르기 까지 그 가운데 차례로 十住處에 머문 것을 말함이다.」⁵⁸⁾라는 내용 중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각의 아래쪽으로 雲紋이 그려져 있고, 운문 앞에는 산이 보인다. 이는 敷竟伴이라는 명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⁹⁾ 「불보살계를 받고도 이 계를 외우지 않는 자는 보살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니, 일체보살들이 함께 행해야 하는 보살계의 배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계를 받들어 지녀야 한다」⁶⁰⁾는 十重戒의 내용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 구름을 탄 如來大衆이 그려져 있고, 이 여래대중을 향해 자리를 깔고 1구의 인물이 꿇어 앉아 있다. 이는 「十方佛」이라는 명찰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래대중의 향좌에는 타고 있는 등축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大明灯」이

57) 爾時, 釋迦牟尼佛, 從初現蓮華藏世界.

58) 釋迦牟尼佛, (중략) 於寂滅道場, 坐金剛花光王座, 乃至摩醯首羅天王宮.

59) 其中次第十住處, 所說時佛, 觀諸大梵天王, 網羅幢因, 爲說無量世界, 猶如網孔一一世界, 各各不同, 別異無量佛教門.

60) 若受菩薩戒, 不誦此戒者, 非菩薩, 非佛從者, 我亦如是誦, 一體菩薩已學, 一體菩薩當學, 一體菩薩今學, 已略說菩薩波羅提木叉相貌, 是事應當學, 敬心奉持.

라는 명찰의 내용에 해당한다. 「계의 광명이 불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緣만 있고, 因이 없는 것은 아니니, (중략) 물질도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의 법도 아니다. 이것은 <불>의 근본이며, 보살의 근본이니, 大衆諸佛子の 근원은 이와 같은 고로, 受持에 응하여, 읽고 외우고 배움에 응하여야 한다 (후략)」⁶¹⁾ 내용이다.

맨 아래쪽 향좌 구석에는 2구의 기마인물이 세워져 있는 원판을 향해 창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데, 「勇猛將」이라는 명찰의 내용에 해당된다. 이는 第四十八經戒 중에서 「보살은 불계를 받은 자로서 이는 마치 외아들을 생각하거나 부모를 섬기듯 해야 하니, 외도와 악인에게서 불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고, 천의 칼과 만의 몽둥이로 그의 몸을 치는 것과 같다.」는 내용 중, 槍에 관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그렸다고 본다.

6.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을 통해 「대방광불화엄경」의 경우, 「묘법연화경」과 마찬가지로 설화적 내용을 취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묘법연화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각 권의 내용을 좀 더 설명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전의 내용이 복잡한 탓도 있지만 반드시 변상 앞에 제 몇 품인가를 명찰에 써서 밝히고 있다. 이는 「화엄경」이 갈라놓은 권수가 복잡한 탓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권에 교설자도 명찰을 사용하여 밝히고 있다. 이는 「대방광불화엄경」이 「묘법연화경」과는 달리 <불에 대한 보살의 교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각 품마다 다른 교설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절하게 교설자인 보살과 청문자를 명찰에 써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도

61) 是故, 戒光從口出, 有緣非無因, (중략) 非色非心, 非有非無, 非因果法, 是諸佛之根源, 菩薩之根源, 是大衆諸佛子之根源, 是故, 應受持, 應讀誦善學.

반드시 명찰에 써서 알리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경변상화의 내용분석에는 오히려 용이한 점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그리지 못할 경우는 그림은 생략하고 명찰만으로 그 장면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방광불화엄경』의 각권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교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쉬웠다.

『대방광불화엄경』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대방광불화엄경』을 해석하여 사경변상화를 그렸던가 알기 위해서 앞으로는 변상화가 있는 『대방광불화엄경』이 발견되는 대로 내용분석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사경의 경우도 각사경의 설화적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난해하여 경전을 다 읽어도 내용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